

점심시간의 교실살인 96. 3. 20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교실 한쪽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칼로 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한숨돌리는 학부모들로서 한 학생은 죽고 한 학생은 살인자가 된 곳이 한낮의 교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우리 아이도 괴롭힘을 받아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상태나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미움을 받거나 있지는 않은지 남의 일 같지 않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죽은 학생은 말이 없다. 계속되는 심부름과 구타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학생이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 유추할 수는 있으나 죽은 학생이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을 '괴롭힘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단순화시켜 한국판 '이지메 현상'이라고 판단하거나,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다.

그러나 어떤 학생이 유독 한 학생만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교사나 학교는 그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반 편성에 융통성을 발휘해 다른 학급에 배치해 두 학

생을 떼어놓았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일반적으로 한번 학교에 왔다가 밖으로 나가려면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간섭 없이 학교 밖에 나가 흥기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면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싸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교사에게 잘 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실에서 치고받는 싸움이나 금품갈취 등 비행은 대부분 점심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각 급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교사가 따로 밥을 먹는 풍습이 최근에 생겼다. 이전에는 교사가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같이 먹으며 학생들이 도시락을 잘 싸오는지 제대로 먹는지를 살피고, 끼리끼리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 교우관계도 파악하고 학생들의 생활습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의 교실이 어느새 교사의 지도와 관찰을 벗어나 학생들의 '해방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폭력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